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의 외톨이성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원 경 숙

2018년 8월

# 중학생의 외톨이성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지도교수 최 보 영

원 경 속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원경속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8월

<국문초록>

중학생의 외톨이성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원 경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외톨이성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외톨이성향 학생들의 진로인식 수준을 높여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중학생의 외톨이성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4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학생 450명을 임의표집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450명 중 427명의 자료가 회수되어 94.8%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일부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한 412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어 자료 유효율은 91.5%을 보였

다.

조사도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문항과 외톨이성향, 진로인식 및 학교생활 적응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3.0에 의해서 처리되었다.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료의 이상치, 정규성을 검토하여 각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 각 변인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검토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외톨이성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조절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톨이성향과 학교생활적응, 진로인식 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외톨이성향과 학교생활적응, 진로인식 전체는 약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인식 간에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외톨이성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첫 번째, 외톨이성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이 조절효과를 보였다. 두 번째, 외톨이성향 하위변인 중 소외와 어려움과 외톨이성향 하위변인 중 사회적 유능감이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이 각 조절효과를 보였다. 세 번째로 외톨이성향 하위변인 중 친구교류부재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학생의 외톨이성향이 학교생활적응의 정도를 약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의 외톨이성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외톨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 스스로도 외톨이성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중재하는 요인인 진로인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외톨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진로인식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학교 현장에서 외톨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요어 : 외톨이성향, 학교생활적응, 진로인식, 조절효과

# 목 차

<b>I. 서 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5
3. 연구 모형 .....	6
4. 용어의 정의 .....	7
가. 외톨이성향 .....	7
나. 학교생활적응 .....	7
다. 진로인식 .....	8
<b>II. 이론적 배경</b> .....	9
1. 외톨이성향 .....	9
2. 학교생활적응 .....	13
3. 진로인식 .....	16
4.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 .....	21
<b>III. 연구방법</b> .....	24
1. 연구대상 .....	24
2. 측정 도구 .....	25
가. 외톨이성향 척도 .....	25
나. 학교생활적응 척도 .....	26
다. 진로인식 척도 .....	27
3. 자료처리 및 분석 .....	28

<b>IV. 연구결과 및 해석</b> .....	29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	29
2.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	31
3.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검증 .....	33
가. 외톨이성향 전체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	33
나. 외톨이성향의 하위변인 중 소외와 외로움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 인식의 조절효과 .....	35
다. 외톨이성향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 인식의 조절효과 .....	37
라. 외톨이성향의 하위변인 중 친구교류부재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 인식의 조절효과 .....	39
 <b>V. 논의 및 결론</b> .....	 41
 <b>참고문헌</b> .....	 47
 <b>Abstract</b> .....	 56
 <b>부록(설문지)</b> .....	 59



##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의 배경변인 및 분포 .....	25
표 III-2. 외톨이성향 척도 문항 및 하위요인 신뢰도 .....	26
표 III-3. 학교생활적응 척도 문항 및 하위요인 신뢰도 .....	27
표 III-4. 진로인식 척도 문항 및 하위요인 신뢰도 .....	28
표 IV-1. 특정변인의 기술 통계량 .....	30
표 IV-2. 외톨이성향과 학교생활적응, 진로인식 변인 간 상관계수 .....	32
표 IV-3. 외톨이성향 전체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	34
표 IV-4. 소외와 외로움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	36
표 IV-5.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	38
표 IV-6. 친구교류부재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	40

##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모형 .....	6
그림 IV-1. 외톨이성향 전체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	35
그림 IV-2. 소외와 외로움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	37
그림 IV-3.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	3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발달 단계 중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청소년들 대부분은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위계적이고 종적인 가족관계로부터 벗어나 다양하고 자유롭고 대등하고 수평적 인간관계인 친구로 관계가 확대되며, 그 관계는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구본용, 김행수, 2014).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상 청소년들은 친구에게 의존하고 많은 문제를 친구와 의논하며 이해받는 대상으로 친구를 선택한다(노경자, 1998).

따라서 청소년기에 당면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건전한 친구관계의 형성이며, 친구관계에 문제가 있게 되면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 2001).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에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Sullivan(1953)도 부모나 친척, 선생님보다 친구들에게 중요한 타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아동·청소년이 만약 친한 친구를 갖지 못하면 외로움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는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중학교시기에 또래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친구 집단에 어울림으로써 또래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에 대해 새롭게 지각하며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김경희, 1986). 중학교 시기는 급격한 신체적·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서 사고의 범위도 늘어나 지적수준도 향상되고 이에 따른 심리적 변화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은 중학생 시기를 학교적응의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하였다(금지현, 손찬희, 채수은, 강성국, 2013).

본격적인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중학교시기에 절대적인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외톨이성향의 중학생은 막대한 주관적 고통을 느끼며 이들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김미진, 2016). 이 시기에 외톨이 경험을 한 청소년은 이 후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시형, 2001).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친밀한 인간관계가 없으면서 6개월 이상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지칭한다(이지영, 2010).

외톨이청소년은 어울릴 친구가 없거나 또래집단이 없어서 주로 혼자 지내는 청소년을 말하며, 다른 친구들로부터 명백하게 공격적 행동을 받는 경우를 왕따 외톨이로 구별 지어 분류한다(이시형 외, 2000). 친구 없이 지내는 외톨이와 왕따 외톨이의 관찰되는 모습은 유사하나 대인관계 어려움을 유발하는 심리적 특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왕따외톨이는 공격성의 하위 요인인 대인의식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유숙희, 2003), 외톨이집단은 대인관계에서 불안과 긴장감 및 불편감을 많이 느끼고, 타인에 대한 경계와 왜곡된 지각으로 인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다. 또한 타인의 갈등상황을 도와주거나 친구들의 장점을 칭찬하고 먼저 인사하는 등의 공감능력이 또래들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다(박선영, 2005; 손지향, 2008; 송남선, 2005; 이시형 외, 2000).

왕따외톨이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 파악되어 이들에 대한 개입이 비교적 조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외톨이 청소년은 자기만의 세상으로 숨어 버리는 성향이 있어 관계적 위축을 경험하고 잦은 결석, 학교 부적응, 등교거부 등 문제가 이미 진행된 후에야 심각성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윤명숙, 송행숙, 2011). 중학생 시기의 외톨이 경험은 이후의 발달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본격적인 청소년에 접어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이들의 안정적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능하다고 여기며,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더 우울한 성향이 있으며 성인기에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Ellenboge & Chamberland, 1997). 김경미(2011)와 지영진(2013)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심한 불안을 느끼고 회피하게 되는 경우, 부정적인 자기 평가와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심리적 고통과 더불어 대인관계

와 사회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교우관계에서 어울릴 친구나 또래 집단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외톨이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학교생활적응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윤명숙, 송행숙, 2011). 또래간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은 외로움, 낮은 존중감 등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며(조남예, 2014) 학교결석이나 조퇴가 잦아 학교생활적응이 어렵게 된다. 학교생활 부적응의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이 전체 학업중단학생의 53%(교육부, 2016)임을 감안할 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이보미, 2016), 특히 중학교에서의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는지의 여부는 청소년기는 물론 그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경아, 정현희, 1998).

중학생시기의 청소년들은 확고한 신념 없이도 타인에 대한 의지도가 높아 동조행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다(엄영순, 2008).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고민하는 문제를 조사한 통계청자료(2014)를 보면,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은 학업(32.9%), 직업(25.7%), 외모·건강(16.9%)의 순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상담의 주호소 문제 또한 학업과 진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 청소년의 고민을 조사한 통계자료는 수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최근 몇 년간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손윤영(2014)은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동기와 관련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부모-자녀간의 관계성, 사회적 영향, 목표설정의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유능성, 노력과 몰입성’ 등이 진로에 대한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진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기로 진로문제가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동기를 탐색하며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조아미, 2005).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한 대안으로 2013년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탐색하게 하는 자유학기제가 실시되었고,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다. 나아가 2018년에는 전체 중학교의 약 46%에 해당하는 약 1500여개 교에서 자유학기를 1학년으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며 자유학년에 참가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교과 내신 성적은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다(교육부정책자료, 2018). 최근에는 이미 중학교에서부터 진로를 결정하고 그 진로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세분화된 각종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어 진로결정 시기가 앞당겨져 중학교 시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배한샘, 2016).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잘 적응한다는 연구가 있다(김은정, 2005; 김주희, 2010). 금지현(2012)은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을 진로성숙도로 보고, 학교생활적응이 힘든 개인적인 원인을 명확한 꿈과 비전이 없다는 데서 찾았다. 연문희, 강진령(2002)은 학업상태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상관관계가 학교적응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학습능력이나 학업성취는 쉽게 증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직접적으로 다뤄 학교적응을 증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이신숙,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험위주의 진로교육으로 변화 되어가는 학교현장에서 주변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방치되기 쉬운 중학생 외톨이성향 학생들에게 초점을 두고, 학교생활적응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키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외톨이성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변인으로 진로인식을 제안하여 그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및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볼 때, 중학생시기 외톨이성향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톨이성향의 각 하위요인별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서 학교생활적응에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아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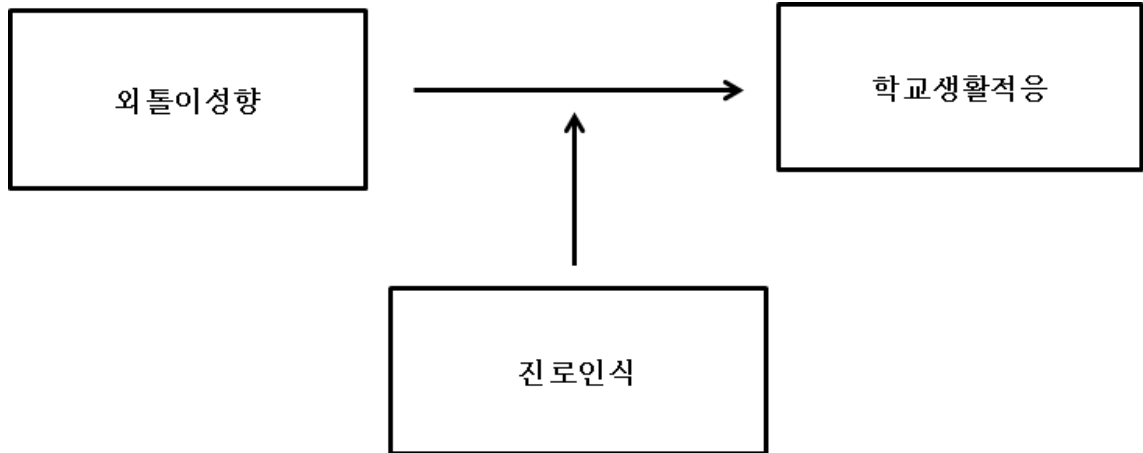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외톨이성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중학생의 외톨이성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가설 1. 중학생의 외톨이성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1-1. 중학생의 외톨이성향 중 소외와 외로움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1-2. 중학생의 외톨이성향 중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1-3. 중학생의 외톨이성향 중 친구교류 부재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3. 연구 모형



<그림 I -1> 연구모형



##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외톨이성향, 학교생활적응, 진로인식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외톨이성향(Oietytolie Propensity)

어울릴 친구나 또래집단이 없어서 주로 혼자 지내는 청소년을 외톨이성향을 가진 청소년이라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은 크게 두 가지의 하위 유형으로 나뉘는데 어울리는 또래 집단이 없이 혼자 지내는 청소년들과 친구들로부터 명백하게 따돌림을 받는 청소년들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외톨이 청소년으로 다시 명명하고, 후자를 왕따외톨이 청소년으로 명명한 이시형 등(2000)의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집단 따돌림 혹은 왕따처럼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받은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학급이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소외당하고, 집단에 적극적으로 합류하지 못하고 곁돌고 있는 학생의 성향을 외톨이라고 정의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외톨이성향의 하위요인으로 소외와 외로움, 사회적유능감, 친구교류부재로 외톨이성향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 나. 학교생활적응(adjustment to school life)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생활하는 것은 문제 행동을 지양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행이나 학업중단 등의 문제 행동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구장희, 2017). 특히 중학교의 경우 가정으로부터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초기로서 학교집단에서의 적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제반 여건을 자신의 욕구와 적절히 조절하고 학교생활 중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가는 과정을 학교생활적응이라고 정의하고,

교사학생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환경, 학교행사참여를 하위요인으로 측정하였다.

#### 다. 진로인식(Career Recognition)

진로인식이란 개인의 진로 발달과정에서 개인이 일의 진가와 진로선택의 준거를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으로(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진로인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아개념(진혜영, 정혜영, 2006), 즉 자기인식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시기의 진로인식을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자기 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에 대해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진로인식의 척도를 자아인식, 직업의 세계, 직업에 대한 태도, 의사결정능력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측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외톨이성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로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외톨이성향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거부 또는 무시당하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다. 고립의 수준이 어떻든 간에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곁돌며 고립감을 느끼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일 것이다(안지영, 2017).

‘외톨이’라는 말은 우리 고유어로 매인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홀몸을 말할 때, ‘외톨박이’, ‘외톨이’, ‘외톨토리’라고 부르는 것에서 가져왔다(김경옥, 2012). 최초의 정의는 Moreno(1934)가 고립아를 한 집단 안에서 친구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아동이라고 정의한 것이다(김미진, 2016).

‘외톨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부터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친밀한 인간관계가 없으면서 6개월 이상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한다(이지영, 2010). 따돌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청소년이 또래 관계에서 고립되는 원인이나 특성이 무엇인지를 조명하며 따돌림에 더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따돌림을 당하진 않지만 친구들과 사이에서 곁도는 외톨이 청소년도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김은정, 2001; 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 2001). 국내 연구는 어울릴 친구가 없으면서 곁도는 청소년을 외톨이, 어울릴 친구가 없으면서 분명히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

을 왕따외톨이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외톨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인 비외톨이 집단을 비교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김진영, 2006; 원수경, 2005).

김종진(2006)은 외톨이 청소년을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청소년이라고 구별하여 정의했다. 황소영(2011)은 외톨이를 또래에서 상호작용 빈도가 낮고, 또래들이 적극적으로 싫어하지 않지만 선택받지는 못하며 수줍음이 많고 소극적이거나 위축된 행동을 보이고 혼자 놀이와 같은 비사회적 특성을 보이는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아이라고 정의하였다.

삼성생명공익재단 부설 사회정신연구소가 전국의 중·고등학생 1천 3백66명과 그 부모, 그리고 상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 1백 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친구가 없거나 1~2명의 친구가 있더라도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없는' 외톨이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시형 등(2001)은 어울릴 친구가 없거나 또래집단이 없어서 주로 혼자 지내는 청소년을 외톨이로 정의하고 그 하위 유형으로 친구들로부터 명백하게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을 왕따외톨이 청소년으로, 어울릴 친구가 없거나 또래집단이 없어서 주로 혼자 지내는 청소년을 외톨이 청소년으로 명명하고,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아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아이, 혼자만 있고 싶어 하는 아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이들을 외톨이의 대상으로 들었다. 왕따외톨이인 경우 공감성과 주장성 부족 및 공격성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외톨이인 경우 공감성과 자기주장과 같은 사회적 기술 요인 부족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하위 유형중 공격성의 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성향'이란 사물의 성질 혹은 기질 등을 총칭하는 말로서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이 아니나 어떤 사물이 어떤 특정한 종류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관찰 가능한 근거에 의거하여 잠재적으로 있었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잠재적 형태로 존재했던 성질을 성향이라고 하며 이는 경향성·가능성·잠재성·추세 등을 통칭한 말이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외톨이성향'이란 어울릴 친구나 또래집단이 없어서 주로 혼자 지내는 것으로, 절대적인 친구 수 보다는 친구가 없어서 주로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은 학생의 성향을 말한다(박선영, 2005). 외톨이 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본 선행연

구에 따르면 부모 변인,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또래 관계 문제들을 외톨이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즉, 비외톨이와 외톨이 및 왕따외톨이 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 외톨이와 왕따외톨이 집단이 비외톨이 집단보다 가정, 개인, 사회적 요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지영, 2017). 이규미 등(2001)은 외톨이와 왕따외톨이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외톨이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김경옥(2012)은 중학생 외톨이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외톨이 청소년이 독특한 외모, 부정적 성격, 낮은 자존감, 낮은 인지 능력과 같은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외톨이가 비외톨이보다 우울과 불안수준이 높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손정우 외, 2000; 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 2001). 또한 외톨이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부족이나 사회적 상황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원수경, 2005) 등, 외톨이 청소년이 또래들에 비해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고 공감능력이 부족하며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끄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는 일반적으로 개인 대 개인의 양자관계와 또래 집단 대 개인의 관계라는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이시형 외, 2000).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연구한 문헌에서는 친구들 대부분이 좋아하는 아이를 ‘인기 있는’, 혹은 ‘인정받는’ 아이로, 친구들 대부분이 싫어하는 아이를 ‘거부당하는’, 혹은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로 분류하였다(Coie JD, 1990; Coie JD, Dodge KA, 1988; Newcomb AF, Bukowski WM, Pattee L, 1993). 또래에게 거부 받는 집단으로 분류되는 중학생들을 다시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을 때, ‘남들이 쉽게 괴롭힐 수 있는’ 속성보다 ‘남에게 싸움을 먼저 거는’ 속성의 집단을 공격적인 거부집단으로 명명하고, ‘남에게 싸움을 먼저 거는’ 속성보다 ‘남들이 쉽게 괴롭힐 수 있는’ 속성이 더 많은 집단을 ‘복종적인 거부집단’으로 분류한 연구도 있다(문은영, 1993).

교우관계는 특별한 사회적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또래들과 선택적인 또래관계를 유지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신과 또래관계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소외되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친구끼리 서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친구관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래관계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므로 원만한 또래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또래들과의 어울림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구본용, 1999).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어떤 관계를 경험하느냐 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 있어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와 통합적 부분을 이루며 정서발달과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Asher et al, 1989).

같은 문제를 갖는 친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비춰보기도 하며 자신의 감정, 비밀 등을 털어 놓을 대상으로서 친구가 필요한 시기에(박종호, 2007) 인정받지 못하거나 거부당하는 아이들은 사회적 고립과 위축, 소외, 외로움 등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낸다(박선영, 2005). 이들은 또래집단에 들어가더라도 조용하고 특정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무시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이들이 또래집단에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하고 꺼리는 성향이 있음을 시사한다(손정우, 김은정, 홍성도, 이시형, 홍강의, 2000). 또한 세상을 향해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호소하기 보다는 자신만의 세상으로 숨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으로 학교, 친구, 가족들과의 단절 등 관계적 위축이 되며 학교부적응,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윤명숙, 송행숙, 2011).

청소년의 친구관계 형성을 돕고 친구관계로 파생되는 다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어울릴 친구가 없거나 무시당하는 청소년은 ‘왕따’나 학교 폭력의 대상자가 되기 쉽고, 등교 거부나 학습장애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담자의 조력이 더욱 필요하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하여 상담자는 이들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외톨이가 되는지, 이들이 원만한 친구관계를 갖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 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송남선, 조옥귀, 2005).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을 집단 따돌림 혹은 왕따처럼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받은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학급이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소외당하고, 친구 및 또래집단과 교류가 없이 주로 혼자 지내며 집단에 합류하지 못하고 곁돌고 있는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보고자 한다.

## 2. 학교생활적응

‘적응’이란 생활체가 환경에 대해 만족한 관계를 갖고자 할 때, 자신과 환경 사이에 조화된 관계를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실제와 욕구에 대한 순응이며, 환경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포함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정원식, 이상로, 이성진, 1991). 즉 적응은 환경 간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며 욕구의 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김연순, 2001), 청소년이 발달단계상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부정적인 환경 요소들과 자신의 실제 욕구와의 관계에서 충돌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과업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최보람, 2008).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을 가정, 학교, 사회로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때, 학교에서 학생이 받는 교육적 영향을 통틀어 ‘학교생활’이라고 한다. 학교 교육과정이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학교에서의 비교육적 영향도 넓은 의미에서는 학교생활에 포함된다(송남선, 조옥귀, 2005). 오늘날 학교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보다 원만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 내는 것이다. 학교생활의 적응 수준에 대해 어떤 것을 적응수준이 높고 어떤 것을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학교생활 적응을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전연이, 2006). 학교생활 적응은 이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어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서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들이 총체적인 영향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바람직하고 적절하게 적응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학교생활에서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자신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보미, 2016).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현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팽배해 있어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므로 학생들의 학교 적응은 그 비



중을 더욱 크게 한다. 더구나 학교 규모의 대형화, 학급 인원수의 과밀현상,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의 학교 환경은 항상 학교적응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학교생활 적응은 학생이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등에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조화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뜻한다(이호선, 2001). 학교적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교육성과는 비례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임정순, 1993), 학교생활의 적응 여부는 학생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청년기와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잠재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백혜정, 2007).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학교 안 친구, 교사와의 관계가 조화롭고 성적도 올라가고 이에 바람직한 행동적 특성이 형성되면서 개인의 성장과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노성호, 2005). 특히 친구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가 친화적이며 교사와 학생 간 신뢰하며 격려하는 허용적 분위기일 때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학업성취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명선, 2014).

민영순(1980)은 학교생활 적응을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대인관계와 학교의 규칙 준수 등에 있어서 조화롭고 적절한 행동을 하며 정상적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안영복(1984)은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환경들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고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자신이 바람직하게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태도·동기가 긍정적이므로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학업성적이 향상되기도 하며 행동 특성 또한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발달은 물론 학교와 사회 발전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김용래(1993)는 학교생활적응을 학생이 학교생활, 학교수업, 학교 내 또래관계, 학교 환경 전반 등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노력의 과정으로서 학교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학생의 시도라고 개념화 하였다.

최진성(2016)도 학교생활적응을 중학생 개인이 전체 학교생활로부터 유발되는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과 학교 환경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며, 학교와 개인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이뤄나가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능력으로 또래관계, 교사관계, 학습적응, 학내생활의 하위영역이라고 정의하였다.

최보람(2008)은 학교생활적응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게 되는 교육적 영향 뿐 아니라 비교육적 영향까지 포괄해서 잘 수용하고 학교환경, 학교교사, 학교수업, 학교친구, 학교생활 등의 관계에서 성취동기를 갖고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타인들과 조화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만족감을 느끼고 진로태도성숙을 바탕으로 높은 학업성취를 나타내는 상태라고 보았다.

학교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단순히 지적기능을 발달시키는 기술의 습득 차원을 넘어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가는 중요한 역할을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회적으로 동화하고 적응성을 지니는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특히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인 중학교의 경우 가정으로부터 사회의 일원으로 학교집단에서의 적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학생의 성공적 성장을 위해 학교생활적응은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지복희, 2011).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학교생활적응과 관련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던 변인들을 개인 내적인 특성, 사회·환경적 특성, 심리·정신적 건강 관련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 내적인 특성에 있어서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학생의 성별, 연령, 성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김혜진, 2016; 신진희, 2005; 전연이, 2006; 지복희, 2011), 학습동기, 자기효능감(김용래, 1993; 문은식, 2002), 자기통제, 자아탄력성(이승미, 2016; 최진성, 2016), 학업성적(문은식, 2002), 진로성숙도(김유진, 2015; 최보람, 2008) 등의 변인들을 연구하였다.

둘째, 사회·환경적 특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조, 또래관계, 교사관계, 사회적지지(이보미, 2016; 이인숙, 2008; 최진성, 2016)등의 변인들을 연구하였다.

셋째, 심리·정신적 건강이나 문제행동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우울, 불안, 과잉행동, 강박, 인터넷 중독(김미옥, 2003; 이인숙, 2008; 전연이, 2006; 지복희, 2011; 최은주, 2017)등과 같은 변인들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은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과 같은 학교에서의 생활경험 중 자신이 접한 교육 환경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개인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환경에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것(신진희, 2005; 안영복, 1984; 지복희, 2011)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환경요인이다. 학교생활적응은 모든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서 학생의 행동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켜 정상적 성장과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이인숙, 2008).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톨이 중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제반 여건을 자신의 욕구와 적절히 조절하고 학교생활 중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가는 과정을 학교생활적응이라고 보고, 지복희(2011)의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척도는 학교교사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환경적응, 학교생활참여적응의 5가지 하위영역에 대한 적응을 측정한다.

### 3. 진로인식

‘진로’란 개인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의 총체를 일컫는 개념으로서 전 생애를 통한 직업발달 과정 및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김충기, 2000). 진로(career)의 어원은 ‘수레가 다니는 길을 따라간다(to roll along on wheels)’라는 말을 의미하는 ‘carro’에서 나왔다. 다양한 학문분야 및 개념이 활용되는 맥락과 관련된 주요 대상에 따라 진로는 ‘직업, 경력, 생애’ 등의 용어와

호환되고 있고, 심리학 분야에서는 자아실현의 수단, 개인 생애구조의 한 요소로 정의내리기도 한다(노경란 외, 2008).

교육분야에는 진로가 학생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 양성을 통해 사회발전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보다 넓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황혜정, 김이경, 2015). 한국교육개발원(1986)은 학교 교육제도 내에서의 진로 교육 단계를 진로인식단계, 진로탐색단계, 진로준비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직업과 일의 세계에 대한 자아인식 능력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시기에 향상시킨다면 진로선택 범위를 확장시켜 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 후 개인이 가장 적합한 진로를 결정 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민지원, 2010). 중학교 시기가 진로 탐색 단계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없이 타인의 의견을 따르는 동조 행위의 최고조의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성적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거나 부모나 교사 등 타인의 뜻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김길정, 2003).

‘인식’이라는 말은 지식과 같은 뜻이지만, 지식은 아는 작용보다 이미 알고 있는 성과를 가리키고 인식은 성과와 함께 아는 작용도 포함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단순히 객관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지적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 그 실제 생활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임석진, 윤용택, 황태연, 이성백, 2009).

‘진로인식’이란 진로발달 과정에 있어서 일의 진가와 진로선택의 준거를 이해하고, 개인이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진로인식은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기초정보를 수립하여 직업의 역할 등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잠정적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하는 개념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86). 이 단계에서 개인은 진로의 종류에 대한 이해, 직업관의 개발, 직업과 여가활동의 관계 이해 및 각 진로 추진에 필요한 기초기능·학력·기술 등에 관한 소양을 기르며 자신의 잠정적 능력을 알고 앞으로의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사고하고 개발하며 이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김충기, 1985).

김용호, 김종근(2016)은 진로인식을 자신의 취미 및 적성과 소질 등을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소양을 갖추음으로서 직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가치관을 기르고 의사결정능력 등을 형성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라고 정

의하였다. 이러한 진로인식은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어려서부터 반드시 교육될 필요가 있다(문경목, 양영석, 김명숙, 2013).

김창환 등(2013)은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준비행동으로 진로역량을 구분하여, 자기이해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 관심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진로탐색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지식을 쌓아 스스로 계획을 세우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고 진로상담을 받는 등 실제적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정의했다. 학생들의 진로인식을 학교급 별로 조사한 고재성, 김선호, 노경란, 변정현, 김은영(2008)은 희망직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격, 능력,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일반계고 학생이 전문계고 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아미(2005)의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직업결정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직업결정 준거에 따른 직업결정 유형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미래직업을 결정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황혜정, 김이경(2015)은 학생 진로 인식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 급별로 볼 때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인식이 중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진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겠다는 열망도 강했으나, 이러한 관심이 적극적인 진로 탐색이나 준비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진로 인식 수준이 낮다는 점은 중학교 단계부터 학생 개개인의 특성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탐색 및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진로교육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Super(1951)는 진로인식의 구성요인을 진로관여도, 진로확정도, 진로독립도, 선택의 태도도, 진로타협도의 다섯 가지로 개념화 하였다. 진로관여도는 직업선택 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정도이고, 진로확정도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이고, 진로독립도는 진로 선택 시 얼마나 독립적인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의존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고, 선택의 태도도는 일에 대한 태도가 과업중심인지, 쾌락중심인지의 가치태

도를 말하며, 진로타협도는 진로 선택과정에서 자신의 욕구와 현실적 여건과의 갈등에 대한 타협정도를 말한다.

Tuckman(1974)는 자아인식, 진로인식 및 진로 의사 결정이라는 주요 요소를 포함하는 8가지 단계의 진로발달이론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일반적인 의존의 단계(5~6세), 2단계는 부정적인 독립의 단계(6~7세), 3단계는 조건적인 의존성을 보이는 단계(7~8세), 4단계는 독립성의 단계(8~9세)이다. 다음의 네 단계는 앞의 네 단계가 반복되는 것으로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아동의 성격은 더 분명해지고 각 단계와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특이성을 과정에 추가시킴으로서 더 발달된 단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첫 단계의 반복인 5단계(10~11세)는 외부적 지지를 찾고 애매모호함을 피하려고 함으로써 인정을 얻으려고 한다. 6단계(12~13)는 자기 결정의 단계로 자기의식을 필요로 하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려는 연습을 하면서 자신의 규칙과 규범을 설정한다, 7단계(14~16세)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유의미한 관계의 형성을 중시하고 동료 사이의 문화와 특성을 형성해 나간다. 마지막 8단계(17~18)는 자율성의 단계로서 직업에 대한 탐색과 자기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며 진로 문제에서 교육조건, 선택가능성, 자신의 적합성 여부 등에 초점을 두면서 대안을 점차로 축소시켜 나간다(김효정, 2012).

한국교육개발원(1989)에서는 진로를 결정하는 요인을 종합하여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성낙철(1998), 최준섭(1998)의 연구에서도 진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인 요인, 환경적 요인, 직업적인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개인의 지능과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학력, 신체적 조건 등을 들 수 있는데, 개인적인 요인 중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자아존중감이 클수록 자신의 발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성공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채원, 2010).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 가정의 전통과 종교, 가정의 경제, 사회적 여건 등이 있다. 특히 아동기 때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진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정경제 수준이 낮거나 학업성적이 낮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진로인식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직업적인 요인들을 강화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이채원, 2010).

직업적인 요인은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진로교육을 하는 영역에 해당되며, 직업의 의미, 직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직업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의 변화 등의 요인들이다(전미경, 2003). 진로교육은 전 생애를 통해 개인의 진로발달에 따라 구성 되어야 하고, 단계별로 진로의 내용을 전개하고 지도하여야 한다(김충기, 1995).

한편, 일반계고, 전문계고,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 이해의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이해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계고 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진로 이해도에 있어서는 마이스터고 학생의 응답이 더 긍정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배상훈, 김효선, 김국군, 2011). 연구자들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활동과 방과후학교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학교의 수업이 자신의 진로와 직업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장래 희망직업과 자신의 특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중학교 때 진학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중학교시기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로 고민에 대한 충분한 진로상담과 진로지도가 제공되어야 한다(김봉환, 2006).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이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진로교육은 비교양적인 것으로 보고 형식교육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 안에서 진로교육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힘들다(김효정, 2012). 학생 개개인의 진로 인식의 내용은 개개인의 삶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할 것이며, 그 삶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적 결과일 수 있다(김은선, 이영순, 김동원,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시기의 진로인식을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자기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에 대해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외톨이 중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 4.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

최근 국내 연구의 동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특성연구와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과 아동들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외톨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김미진, 2016). 외톨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동향은 주로 학교생활적응(김미옥, 2003; 이인숙, 2008; 전연이, 2006; 정연남, 2007), 학교생활 만족도(송남선, 조옥귀, 2005), 교우관계(김순복, 2011; 김미옥, 2003; 김하나, 2014; 손정우 외, 2000; 안지영, 2017; 이인숙, 2008; 황지영, 2018), 자아존중감(김미진, 2016; 김순복, 2011; 전연이, 2006), 게임중독 위험성(박선영, 2005), 외톨이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윤명숙, 송행숙, 2011; 이지영, 2009), 심리사회적 특성(이규미, 구자경, 김은경, 이시형, 2001) 및 사회성과의 관련성(전연이, 2006)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외톨이 아동이 스스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필요한 도움으로 자기주장이나 친구사귀기와 같은 구체적인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연구결과(김미옥, 2003; 김미진, 2016; 김진희, 2004)는 외톨이 아동들에게 교우관계 훈련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또래간의 지지는 학교생활 참여, 성취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는 부정적인 상관이 있다(Berndt & Hawkins, 1991). 따라서 자발적 상호의존 관계로서 또래관계는 그들의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김명숙, 1994; 소영원, 2006), 또래친구의 수는 외로움, 불안 같은 정서와 학교 선호도에 대한 강력한 예언이 된다(Coleman, 1993). 또한 우정, 도움 같은 긍정적 또래관계 특성은 아동이 학교의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정서적, 도구적 특성 모두를 이끌어 낸다.

송남선과 조옥귀(2005)의 중학생 대상 연구결과 외톨이 정도는 따돌림 피해 경험 정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외톨이 정도가 심한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의 피해를 많이 받고 학교생활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명숙과 송행숙(2011)의 외톨이의 외톨이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부정적 대인관계경험이 낮은 사회적 유능감과 주로 혼자 지내게 되는 성

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친한 또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청소년은 스트레스가 낮고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여 학교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반면에(김정현, 2008), 또래간의 치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은 외로움, 낮은 존중감 등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고(조남예, 2014), 학업성적이 낮고 학교결석이 잦아 학교적응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학교생활에서 즐거움을 갖게 하며 이후의 성격이나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미숙, 김정숙, 2011; 김혜금, 2014).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학업상태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상관관계가 학교적응과 연결되어 있으며(연문희, 강진령, 2002), 학습방법이나 학습정도에 따른 결과적인 성취도는 학교적응과 바로 연결되는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문은식, 이충희, 2003). 학교생활적응은 학업적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교생활에서 학생 개인이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신숙(2013)은 학생들의 학습능력이나 학업성취는 쉽게 증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직접적으로 다뤄 학교적응을 증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학업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고 부적응적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학교생활영역에서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고 만족스럽게 될 때 이를 통해 학업적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학업적 성취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인식의 관계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잘 적응하며(김은정, 2005; 김주희, 2010), 이와 반대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꿈, 비전이 없다고 한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학생은 쉽게 나쁜 길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나 가정에서는 학생들에게 확고한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금지현, 2012).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내적요인이 목적의지성과 대인관계성의 취약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한 연구(고스키유코, 2011)와 인생목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소외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조선경(1993)의 연구 및 인생목적이 학교생활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확고한 인생목



적을 가진다면 집단 따돌림의 가해 피해 경험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송남선, 조옥귀, 2005) 등에 따라서 외톨이 학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변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김효정(2012)은 학습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의 진로인식 연구에서 학습부진으로 분류된 아동이라 하더라도 진로인식이 높은 아동은 사회·심리적 변인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낮지 않거나 오히려 높을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학습부진 아동 중에서도 진로 인식이 ‘중’수준에 해당되는 아동은 일반 아동 중 진로인식이 ‘하’수준에 해당되는 아동과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인식 수준이 학습 성취 수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학습외의 다양한 변인들이 진로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유학기제등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로 교육을 통해 중학교에서의 공격적 행동이 감소하였고, 협력학습으로 또래관계가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다(자유학기제 사례연구 종합보고서, 2013).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4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외톨이 성향, 학교생활적응, 진로인식을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가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교감선생님에게 사전허가를 받은 후, 취지를 설명하고 배포 후 회수하였다. 총 450부의 설문지 중 427부가 회수되어 94.8%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15부를 제외한 412명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어 자료 유효율은 91.5%을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중학생은 제주시 소재 30개교에 15,269명이 재학 중이고, 서귀포시 소재 15개교에 4,334명의 학생으로 총 45개교의 19,603명이 있다(제주교육통계연보, 2017). 제주시 서귀포시 동일한 비율로 변인들의 수준을 보고자 표집 계획을 세우고 제주시 350명(78%) 서귀포시 100명(22%)을 표집 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변인이 환경적인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학생의 개인내적, 심리적인 변인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임의 표집을 하였다.

연구대상의 배경변인 및 분포는 <표 III-1>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학생은 216명(52.4%), 여학생은 196명(47.6%)로 남학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령은 14세 225명(54.6%), 13세 142명(34.5%), 15세 45명(10.9%) 순으로 나타나 14세가 가장 많았다. 학년은 2학년 271명(65.8%), 1학년 91명(22.1%), 3학년 50명(12.1%)로 2학년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연구대상의 배경변인 및 분포

(N=412)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16	52.4
	여	196	47.6
연령	13세	142	34.5
	14세	225	54.6
	15세	45	10.9
학년	1학년	91	22.1
	2학년	271	65.8
	3학년	50	12.1

## 2. 측정 도구

### 가. 외톨이 성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이시형 등(2001)이 개발한 외톨이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와 같은 친구관계에서의 소외와 외로움 요인에 관한 문항이 7문항, ‘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을 잘 한다’와 같은 사회적 유능감 요인에 관한 문항이 6문항, ‘나는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와 같은 친구들과의 교류부재 요인에 관한 문항이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자기보고 형식의 likert 5점 척도로 구분하며,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유능감’ 문항들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따라서 각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외톨이 성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은정(2001)의 연구에서 외톨이 척도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1, 송남선(2005)의 연구, 이지영(2010)의 연구, 김미진(2016)의 연구에서는 동일하게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 는 .788이다. 외톨이 척도의 구성 및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표 III-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상위요인	하위항목	문항	Cronbach's $\alpha$
외톨이	소외와 외로움	5, 6, 7, 8, 10, 11, 14	.733
	사회적 유능감	4*, 9*, 12*, 13*, 15*, 16*	.562
	친구교류부재	1, 2, 3	.765
전체			.788

\* 역산 문항임

#### 나. 학교생활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문선모(1997)의 생활척도영역과 이상필(1990)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문지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하고 지복희(2011)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자기보고 형식의 likert 5점 척도로 구분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언제나 마음 놓고 한다’와 같은 교사-학생 관계에 관한 영역, ‘친구와 다투었을 때 내가 먼저 사과 한다’와 같은 교우관계에 관한 영역, ‘나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 한다’와 같은 학교수업에 관한 영역, ‘학교에 있는 시설물을 아껴서 사용 한다’와 같은 학교환경에 관한 영역, ‘조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의견을 낸다’와 같은 학교행사참여에 관한 영역 등 5개 영역에 대한 영역이며 각 영역 당 5문항씩 25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지복희(2011)의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3이고, 본 연구에서는 .931이다.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구성 및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표III-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I-3> 학교생활적응 척도 및 하위요인 신뢰도

(N=412)

상위요인	하위항목	문항	전체항목 신뢰도
학교생활 적응	교사학생관계	1, 6, 11, 16, 21	.931
	교우관계	2, 7, 12, 17, 22	
	학교수업	3, 8, 13, 18, 23	
	학교환경	4, 9, 14, 19, 24	
	학교행사참여	5, 10, 15, 20, 25	

#### 다. 진로인식 척도

중학생들의 진로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1986)에서 개발한 진로인식에 관한 설문지를 이채원(2010)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인식의 하위 영역은 자아인식, 직업의 세계, 직업에 대한 태도, 의사결정 능력으로 구성되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와 같은 자아인식에 관한 문항이 7문항,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와 같은 직업의 세계에 관한 문항이 6문항, ‘나의 진로선택은 나의 가치관과 나의 능력과 나의 흥미에 맞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와 같은 직업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항이 5문항,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맞춰 진학을 생각할 것이다.’와 같은 의사 결정 능력에 관한 문항이 6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자기보고식 likert 5점 척도로 구분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되는 진로인식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 는 .917이며, 진로인식 척도 구성 및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표 III-4> 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I-4> 진로인식 문항 및 하위요인 신뢰도 (N=412)

상위요인	하위항목	문항	전체항목 신뢰도
진로인식	자아인식	1, 2, 3, 4, 5, 6, 7	.917
	직업의 세계	8, 9, 10, 11, 12, 13	
	직업에 대한 태도	14, 15, 16, 17, 18	
	의사결정능력	19, 20, 21, 22, 23, 24	

###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for Windows 23.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 및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 및 하위변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를 검증하였다.

셋째, 중학생의 외톨이 성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절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및 상호작용 값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 방법(Mean Centering)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항으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든 분석에서 분산팽창계수(VIF)는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외톨이 성향, 학교생활적응, 진로인식의 평균, 표준편차는 <표 IV-1>과 같다.

외톨이 성향에 해당하는 관찰변인은 소외와 외로움, 사회적 유능감, 친구교류부재이다. 관찰변인들의 5점 척도 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소외와 외로움(M=2.00), 사회적 유능감(M=2.64), 친구교류부재(M=2.23)는 모두 보통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 변인들의 값이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외톨이 성향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중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외톨이 성향 중, 소외와 외로움을 느끼고 사회적 유능감이 낮고, 친구와의 교류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생활적응에 해당하는 관찰변인은 교사학생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환경, 학교행사참여이다. 관찰변인들의 5점 척도 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교사학생관계(M=3.10), 교우관계(M=3.61), 학교수업(M=3.20), 학교환경(M=3.30), 학교행사참여(M=3.49)이다. 학교생활적응 중, 교우관계는 다른 변인들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고, 이는 중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교우와의 관계가 좋은 편에 속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 학교생활적응 중, 교사학생관계는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냄으로써 중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인식에 해당하는 관찰변인은 자아인식, 직업의 세계, 직업에 대한 태도, 의사결정능력이다. 관찰변인은 5점 척도 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자아인식(M=3.74), 직업의 세계(M=3.76), 직업에 대한 태도(M=3.31), 의사결정능력(M=3.38)이다. 진로인식 중, 직업의 세계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고, 이는 중학생들의 진로인식 중에서도 직업의 다양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

음을 의미한다. 반면, 진로인식 중, 직업에 대한 태도가 가장 낮은 평균으로 나타나 중학생들에게 현재 직업과 진로에 대한 직접적 태도형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IV-1> 특정변인의 기술 통계량 (N=412)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소외와 외로움	2.00	.511	412
사회적 유능감	2.64	.575	412
친구교류부재	2.23	.971	412
외톨이 전체	2.28	.469	412
교사학생관계	3.10	.788	412
교우관계	3.61	.700	412
학교수업	3.20	.774	412
학교환경	3.30	.593	412
학교행사참여	3.49	.757	412
학교생활적응 전체	3.34	.616	412
자아인식	3.74	.743	412
직업의 세계	3.76	.729	412
직업에 대한 태도	3.31	.636	412
의사결정능력	3.38	.616	412
진로인식 전체	3.57	.587	412



##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외톨이와 그 하위변인인 소외와 외로움, 사회적 유능감, 친구교류부재, 학교생활적응과 그 하위변인인 교사학생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환경, 학교행사참여, 진로인식과 그 하위변인인 자아인식, 직업의 세계, 직업에 대한 태도, 의사결정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의 <표 IV-2>와 같다.

Cohen(1988)은 상관계수가 의미하는 효과 크기에 대해  $r=0.10$ 을 작은 효과,  $r=0.30$ 을 보통효과, 그리고  $r=0.50$ 을 큰 효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톨이 전체와 학교생활 적응 전체는  $r=-.238$ , 진로인식 전체는  $r=-.228$ 으로 약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외톨이 하위변인 중, 친구교류부재는 학교생활 전체와 진로인식 전체에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외톨이 중, 사회적 유능감은 학교생활 전체에  $r=-.333$ , 진로인식 전체에  $r=-.285$ 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톨이 하위변인 중, 사회적 유능감은 진로인식 중에서도 자아인식( $r=-.298$ )과 직업의 세계( $r=-.250$ )에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생활적응 전체는 진로인식 전체에  $r=.494$ 로 높은 상관을 보였고,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변인 중, 교사학생관계( $r=.320$ ), 교우관계( $r=.458$ ), 학교수업( $r=.489$ ), 학교환경( $r=.314$ ), 학교행사참여( $r=.496$ )는 모두 진로인식 전체에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의 교우관계는 진로인식의 하위변인인 자아인식( $r=.431$ )과 직업의 세계( $r=.425$ )에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학교수업은 진로인식의 자아인식( $r=.456$ ), 직업의 세계( $r=.419$ ), 의사결정능력( $r=.447$ )에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의 학교행사참여도 진로인식의 자아인식( $r=.491$ ), 직업의 세계( $r=.454$ ), 의사결정능력( $r=.421$ )에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외톨이성향과 학교생활적응, 진로인식 변인 간 상관계수 (N=412)

변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소외와 외로움(A)	1														
사회적 유능감(B)	.456**	1													
친구교류 부재(C)	.393**	.182**	1												
외톨이 전체(D)	.839**	.748**	.659**	1											
교사학생 관계(E)	.003	-.180**	.078	-.051	1										
교우관계(F)	-.305**	-.436**	-.150**	-.404**	.560**	1									
학교수업(G)	-.155**	-.327**	-.020	-.232**	.682**	.647**	1								
학교환경(H)	-.012	-.128**	.067	-.038	.594**	.565**	.601**	1							
학교행사 참여(I)	-.192**	-.315**	-.065	-.262**	.681**	.774**	.763**	.603**	1						
학교생활적응 전체(J)	-.160**	-.333**	-.024	-.238**	.837**	.836**	.880**	.768**	.906**	1					
자아인식(K)	-.207**	-.298**	-.092	-.272**	.288**	.431**	.456**	.270**	.491**	.460**	1				
직업의 세계(L)	-.153**	-.250**	-.097*	-.226**	.258**	.425**	.419**	.257**	.454**	.431**	.834**	1			
직업에 대한 태도(M)	-.019	-.178**	.074	-.062	.243**	.278**	.324**	.282**	.279**	.335**	.467**	.495**	1		
의사결정 능력(N)	-.128**	-.218**	-.012	-.166**	.297**	.395**	.447**	.270**	.421**	.436**	.668**	.683**	.568**	1	
진로인식 전체(O)	-.162**	-.285**	-.050	-.228**	.320**	.458**	.489**	.314**	.496**	.494**	.909**	.910**	.701**	.850**	1

\* $p < .05$ , \*\* $p < .01$

### 3.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검증

연구문제인 중학생의 외톨이 성향이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은 조절효과가 있는가?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외톨이 전체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두 번째로 외톨이의 하위변인인 소외와 외로움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세 번째로 외톨이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네 번째로 외톨이의 하위변인인 친구교류부재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순으로 살펴보았다.

#### 가. 외톨이 전체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오차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의 값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값은 2에 가까울수록 독립성이 보장된다(노경섭, 2016).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자기 상관을 검증한 결과 1.141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외톨이 전체 변수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진로인식이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IV-3> 외톨이 전체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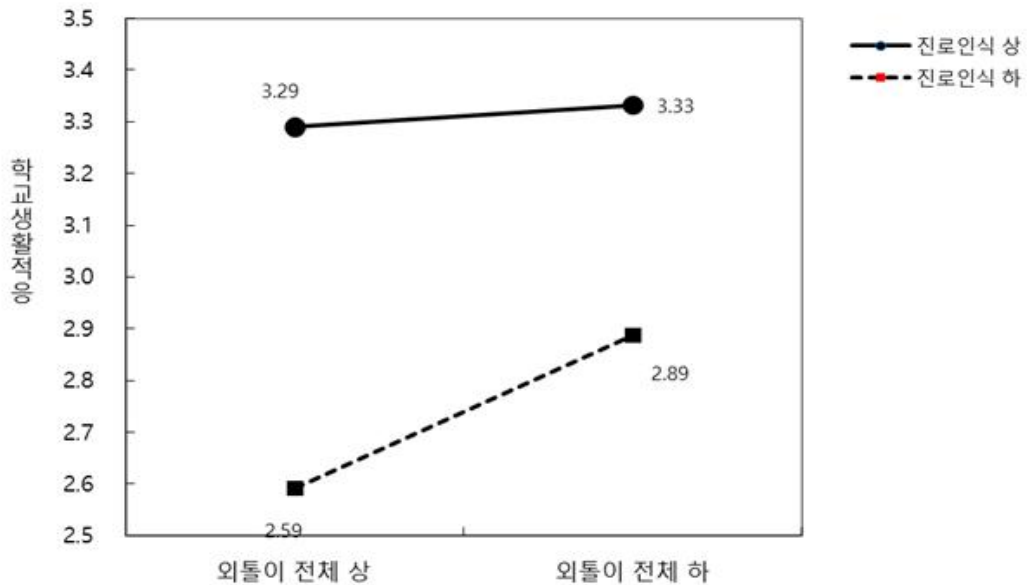
단계	독립변인	B	$\beta$	$R^2$	$\Delta R^2$
1	외톨이 전체	-.313	-.238***	.057	.055
2	외톨이 전체	-.174	-.133**	.261	.257
	진로인식	.487	.464***		
3	외톨이 전체(A)	-.180	-.137**	.273	.268
	진로인식(B)	.487	.463***		
	상호작용항(A*B)	.231	.112**		

\* $p < .05$ , \*\* $p < .01$ , \*\*\* $p < .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에서 외톨이( $B = -.313$ ,  $p < .001$ ) 성향을 많이 느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정도가 약해지며, 외톨이 전체가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5%이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 진로인식이 추가됨으로써 20.2%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p < .001$ ) 전체 설명력은 25.7%이다. 진로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B = .487$ )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으로써 1.1%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p < .01$ ) 전체 설명력은 26.8%이다. 따라서 외톨이 전체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이 조절역할( $B = .231$ )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시된 <그림 IV-1>은 평균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1인 지점을 진로인식이 낮은 수준으로, 표준편차가 +1인 지점을 진로인식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대입하여 상호작용효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김종학, 최보영, 2016). <그림 IV-1>을 보면, 진로인식이 높은 집단은 진로인식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로인식이 높은 집단은 외톨이 수준이 높더라도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진로인식이 높은 경우에 진로인식이 낮은 경우보다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외톨이 성향이 낮을 경우 진로인식이 학교생활적응을 높이지만

진로인식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는 외톨이 성향이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진로인식이 학교생활적응을 완충해 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IV-1> 외톨이 전체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 나. 외톨이성향의 하위변인 중 소외와 외로움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자기 상관을 검증한 결과 1.142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외톨이 하위변인 중, 소외와 외로움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진로인식이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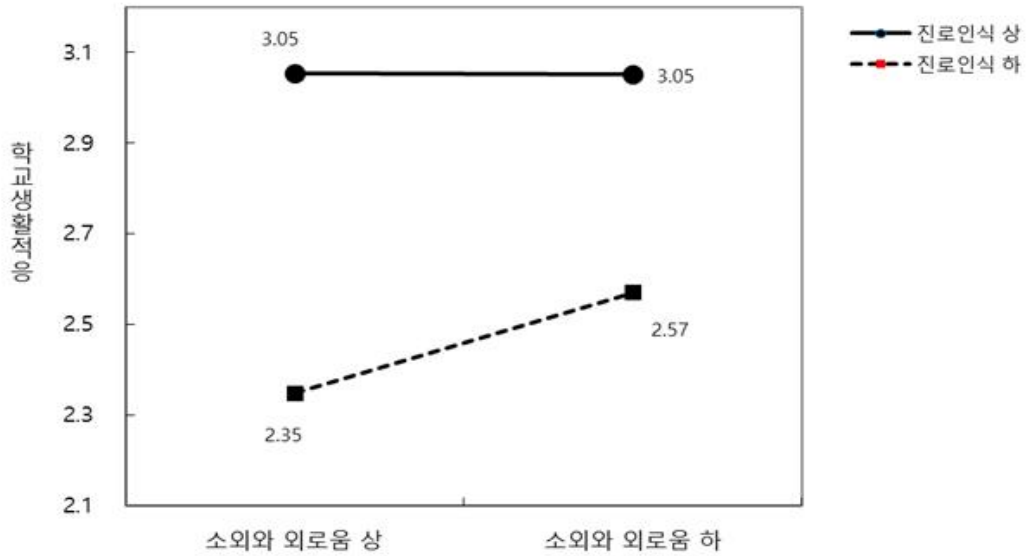
<표 IV-4> 소외와 외로움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단계	독립변인	B	$\beta$	$R^2$	$\Delta R^2$
1	소외와 외로움	-.193	-.160***	.026	.023
2	소외와 외로움	-.099	-.082	.251	.247
	진로인식	.505	.481***		
3	소외와 외로움(A)	-.107	-.088*	.263	.257
	진로인식(B)	.505	.481***		
	상호작용항(A*B)	.188	.110***		

\* $p < .05$ , \*\* $p < .01$ , \*\*\* $p < .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에서 외톨이 성향 중, 소외와 외로움( $B = -.193$ ,  $p < .001$ )을 많이 느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정도가 약해지며, 소외와 외로움이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3%이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 진로인식이 추가됨으로써 22.4%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p < .001$ ) 전체 설명력은 24.7%이다. 진로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B = .505$ )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으로써 1.0%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p < .001$ ) 전체 설명력은 25.7%이다. 따라서 소외와 외로움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이 조절역할( $B = .188$ )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시된 <그림 IV-2>를 보면, 진로인식이 높은 집단은 진로인식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로인식이 높은 집단은 외톨이 중에서도 소외와 외로움 수준이 높더라도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진로인식이 높은 경우 기울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진로인식이 낮은 경우에는 변화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소외와 외로움이 낮을 경우 진로인식이 학교생활적응을 높이지만 진로인식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는 소외와 외로움이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인식이 학교생활적응을 완충해 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IV-2> 소외와 외로움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다. 외톨이성향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1.177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외톨이 하위변인 중, 사회적 유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진로인식이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IV-5>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단계	독립변인	B	$\beta$	$R^2$	$\Delta R^2$
1	사회적 유능감	-.356	-.333***	.111	.108
2	사회적 유능감	-.224	-.209***	.284	.281
	진로인식	.457	.434***		
3	사회적 유능감(A)	-.237	-.221***	.292	.287
	진로인식(B)	.451	.429***		
	상호작용항(A*B)	.125	.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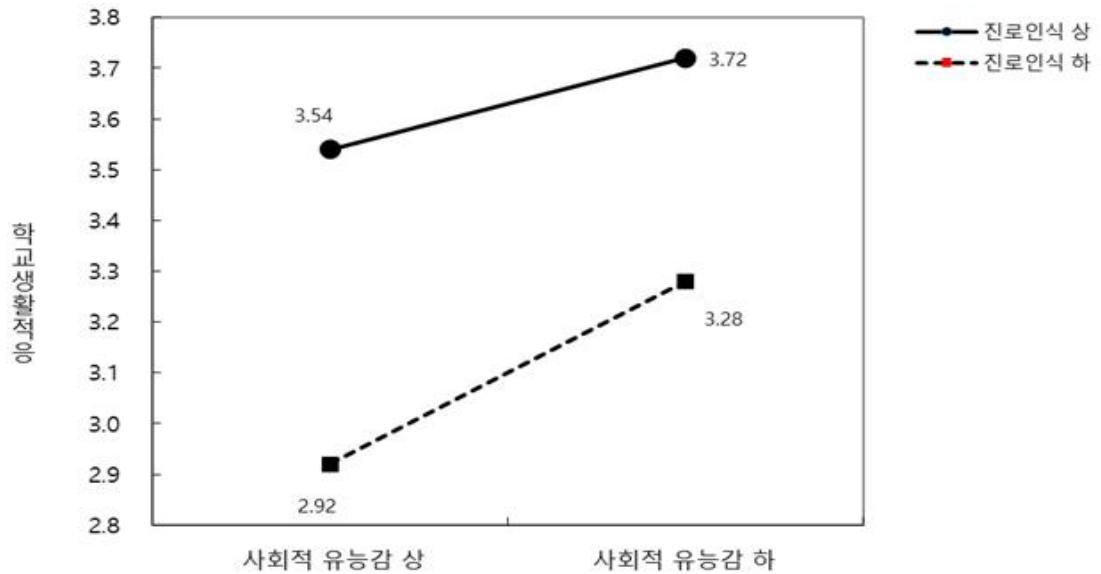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에서는 사회적 유능감 ( $B = -.356, p < .001$ )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유능감이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0.8%이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 진로인식이 추가됨으로써 17.3%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p < .001$ ) 전체 설명력은 28.1%이다. 진로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B = .457$ )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으로써 0.6%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p < .001$ ) 전체 설명력은 28.7%이다. 따라서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이 조절역할( $B = .125$ )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톨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외톨이 성향이 높음을 나타내는데, 사회적 유능감은 외톨이 척도의 하위요인이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낮음을 나타낸다. 제시된 <그림 IV-3>에서 진로인식이 높은 집단은 진로인식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로인식이 높은 집단은 외톨이 중에서도 사회적 유능감 수준이 낮더라도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진로인식이 높은 경우에 진로인식이 낮은 경우보다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유능감이 높을 경우 진로인식이 학교생활적응을 높이지만 진로인식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는 사회적 유



능감이 낮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인식이 학교생활적응을 완충해 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IV-3>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 라. 외톨이성향의 하위변인 중 친구교류부재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1.127으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외톨이 하위변인 중, 친구교류부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진로인식이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IV-6> 친구교류부재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단계	독립변인	B	$\beta$	$R^2$	$\Delta R^2$
1	친구교류부재	-.015	-.024	.001	.000
2	친구교류부재	.001	.001	.244	.240
	진로인식	.519	.494***		
3	친구교류부재(A)	-.004	-.007	.246	.240
	진로인식(B)	.520	.495***		
	상호작용항(A*B)	.037	.040		

\* $p < .05$ , \*\* $p < .01$ , \*\*\* $p < .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에서는 친구교류부재 ( $B = -.015$ ,  $p > .05$ )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 진로인식이 추가됨으로써 24.0%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p < .001$ ) 전체 설명력은 24.0%이다. 진로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B = .519$ )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증가하지 않았고, 상호작용항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 $p > .05$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교류부재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B = .037$ )는 검증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외톨이성향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외톨이성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외톨이성향 학생들의 진로인식 수준을 높여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외톨이성향, 진로인식, 학교생활적응의 변인 간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외톨이성향 전체는 학교생활적응 전체, 진로인식 전체에 약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외톨이성향 하위변인 중 소외와 외로움도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인식 전체에 약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외톨이 성향 하위변인 중 사회적 유능감은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인식 전체에 중간정도의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톨이 성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진로인식도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남선(2005)의 연구에서 외톨이 점수가 인생목적과 학교생활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외톨이 하위변인 중 친구교류부재는 학교생활적응 전체와 진로인식 전체에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기 외톨이 경험과 따돌림 경험이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정서표현 양가성,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안지영(2017)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외톨이 경험과 따돌림 경험이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불편감과 불안 수준이 높다는 이규미, 구자경, 김은경, 이시형(2001)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학교적응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청소년기의 대인 관계적 요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중학생의 친구 지지가 높을수록 문제 행동을 적게 보인다고 밝힌 김인숙(2001)의 연구와 중학생시기에는 또래 집단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학교생활을 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또래집단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할 경우 심리 ·

사회적인 소외감 때문에 학교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배한샘(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학교생활적응 전체는 진로인식 전체에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남선(2005)의 연구에서 외톨이 학생의 인생목적과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의식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박승순(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도 높아짐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승미, 2016; 최보람, 2008)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도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난 연구 결과(김유진, 2015; 박순선, 2014; 조경선, 2011)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둘째, 외톨이성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외톨이성향 전체와 학교생활적응 전체와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이 조절효과를 보였다. 외톨이성향의 하위변인인 소외와 외로움과 사회적 유능감 역시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각 진로인식의 조절효과를 보였다. 사회적 기술이 다소 떨어지고 적응력이 낮은 학생의 경우에도 학업 성적이 좋은 경우는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거나 따돌림을 받지 않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김경옥(2012)의 연구와 윤명숙, 송행숙(2011)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소유하고 있는 자원과 능력이 또래들과 공유할 수 있을 때 또래들로부터 높은 수용과 호의적 태도를 얻을 수 있다는 홍준표(2002)의 연구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인생목적이 뚜렷할수록 학교생활에 만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송남선(2005)의 연구에서도 인생목적이 학교생활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므로 학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생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도록 지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데(김경옥, 2012), 윤명숙, 송행숙(2011)의 연구에서 비 외톨이 집단과 비교하여 외톨이 집단 자아존중감이 현저히 낮다고 하였고, 김경옥(2012)도 외톨이 여중생의 학교생활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에서 외톨이의 특징 중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언급했다. 자아개념과 진로인식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들(김원중, 1984; 강종구, 1986; 정채기, 1995; 김효정, 2012)은 자아개념이 자아

존중감의 기초가 되며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아존중감이 다른 외부 요인보다 진로와 취업관련 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진로 결정 수준에 유의하게 작용한다는 류진혜, 김태성(1998)의 연구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진로결정 수준 차이를 비교 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와 직업에 대한 진로 결정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라는 이선영(2004)의 결과가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진로포부의 정적상관을 보인 김이준(2012)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아존중감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뿐 아니라 진로 영역에 대한 높은 포부 수준을 갖도록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특징으로 하는 외톨이성향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진로인식이 조절효과를 보였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외톨이와 자아존중감 변인 사이에 진로인식의 조절효과에 주목한 연구가 없고 본 연구 또한 연구문제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상관관계가 유의하다는 일치된 결과를 통해 세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외톨이성향의 하위변인 중 친구교류부재는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외톨이 학생 대상은 아니지만 김아름, 이지희, 최보영(2010)의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발달에 관한 5년 종단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성숙발달에 있어서 안정적인 또래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진로성숙도의 성장도 큰 폭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고 밝힌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초기 청소년기는 발달적 특성상 부모관계에서 또래관계로 주요 대인관계가 전환되며 부모지지와 교사지지도보다 또래지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며 특히, 중학교 3학년은 대학입시에 앞서 처음으로 진로의사결정을 하는 시기로서 긴장감 완화와 학교적응에 부모, 또래의 지지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최진성(2016)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또한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친구관계와 학업수행 및 교사와의 관계 모두에서 스트레스지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규미, 구자령, 김은정, 이시형(1997)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외톨이성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인식이 높은 집단은 진로인식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외톨이성향이 높더라도 진로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절변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외톨이성향 학생들의 진로인식이 학교생활적응을 돕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톨이성향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로인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개발과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사할 수 있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능력을 대인기술이라고 부른다(권석만, 2011). 외톨이들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외모와 성격과 대인 기술 부족이 서로 어우러져 친구 관계의 실패가 반복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낮은 자존감은 다시 대인 관계를 맺는 데에 두려움을 느끼고 망설이게 된다(김경옥, 2012). 따라서 학업성적이 진로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진로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업 성취와 관련된 성취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기 능력에 대한 가치평가를 긍정적으로 갖도록 도와주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업성취는 쉽게 증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심리적 변인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킴으로서 학생의 진로인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교우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외톨이 아동이 친구관계에서 느끼는 소외와 외로움은 많이 감소되어 친구들에게 마음을 여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교우관계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들(김미옥, 2003; 김미진, 2016; 김순복, 2011)을 볼 때 학교현장에서 대인기술과 더불어 진로상담 시 개인의 심리적 변인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외톨이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개입 전략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단계 특성상 또래관계의 어려움이 학교생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학생 시기의 외톨이학생을 대상으로 왕따외톨이와 구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진로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학교현장에서 외톨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향성 및 가능성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최근에 학교생활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체험하고, 다양한 고등학교로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외톨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에 중요한 임상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이 결과는 학교생활 위기에 처해있는 외톨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빼앗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심리적인 폭력이 존재할 수도 있는 학교 현장에서 혼자 지내는 경향이 많으며 혼자 지내는 것에 불편을 못 느낄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 외톨이 학생들도 진로인식을 향상시키고 알맞게 조절하면 학교만족도는 낮더라도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외톨이 학생에 대한 연구는 학교생활적응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라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 대부분의 중학생에게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지역에서 보다 많은 표집 대상을 확대시킨 후속 연구가 시행되어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변인이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진로인식의 조절효과를 다루었으므로 외톨이 성향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본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외톨이성향의 자아존중감과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를 병행하여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에는 진로인식이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학교만족도에는 진로인식이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추후연구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의 속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인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추후 연구



를 통해 외톨이성향 학생들의 진로인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찾아보고,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외톨이 성향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와 반대로 진로가 매우 뚜렷하나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측정도구의 문제이다. 측정도구 하위변인 일부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향후 연구에서는 척도의 일정한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본 설문조사에 앞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설문지를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톨이성향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외면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된 진로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고재성, 김선호, 노경란, 변정현, 김은영 (2008). **진로교육 실태조사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곽수란 (2007). 초, 중학생의 생활만족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7(1), 1-21.
- 구본용, 김행수(2014).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중학생의 대인관계 및 고독과의 관계에서 개별성과 관계성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1(2).
- 구장희 (2017).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 전환기 학생들의 낙관주의, 관계성 및 대처양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선만 (2011).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금지현 (2012).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애착 진로성숙도의 인과적 관계. **한국청소년 연구**, 23(3), 5-26.
- 금지현, 손찬희, 채수은, 강성국 (2013).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정 및 개인 관련 변인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2), 119-143.
- 김경미 (2011). **대학생의 성인애착, 사회적지지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옥 (2010). 외톨이 여중생의 학교생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53-584.
- 김경희 (1986). **아동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길정 (2003).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김정숙 (2011). 아동·청소년 학교폭력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88, 67-77.
- 김미옥 (2003).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이 중학교 고립아의 학교생활적응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 (2016). **대인관계 프로그램이 외톨이 중학생의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순복 (2011). **교우관계증진 집단상담이 외톨이 초등학생의 교우관계, 공감능력**

-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심리행동연구**, 3(2), 1-25
- 김아름, 이지희, 최보영 (2010).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5년 종단 연구-성별 및 부모·또래와의 애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843-862.
- 김연순 (2001). **대안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슬 (2008).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래 (1993). **학업성적에 대한 기여요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호, 김종근 (2016). 청소년의 신문활용교육(NIE)이 기업가정신 및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5), 153-164.
- 김원중(1984). **진로의식 성숙과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 (2015). **중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선, 이영순, 김동원 (2015). 중학생의 진로인식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22(1), 203-221.
- 김이준 (2012). **성취압력과 진로포부와의 관계: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검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 (2001).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 지지와 행동문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현, 윤여진, 정인경 (2016). 청소년의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8(1), 71-85.
- 김종학, 최보영 (2016).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4(1), 25-42.
- 김진영 (2006).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이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2004). **초등학생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 및 효과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환, 엄문영, 김종민, 박종효, 박현정, 이광현, 이상돈 (2013).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Ⅱ):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충기 (1991). 미래사회와 진로선택. 서울: 배영사.
- 김하나 (2014). 정서지능증진 프로그램이 외톨이 중학생의 대인불안, 공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 (2012). 학습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의 진로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금 (2014).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2(1), 11-19.
- 김혜진 (2016).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학생 상담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경란, 고재성, 김선호, 김한준, 정명진, 정시원, 최동선 (2008). 직업진로지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노경섭 (2016).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통계분석. 한빛아카데미.
- 노경자 (1998). 학교 상담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지각.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성호 (2005).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가정, 학교, 친구요인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형사정책연구, 63, 295-330.
- 문경목, 양영석, 김명숙 (2013). 창업교육만족도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벤처창업연구, 8(4), 9-23.
- 문은식, 이충희 (2003).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9(4), 1087-1108
- 문은영 (1993). 또래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영순 (1980). 교육심리학. 서울: 문음사.
- 민지원 (2010). NIE를 활용한 진로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2005). 아동의 외톨이 성향과 게임중독 위험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선 (2014).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순 (1999). **중학생의 진로의식과 학업성숙도,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효 (2007). **초·중·고등학생의 정신건강수준과 변화 추이 분석: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의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20(3), 675-695.
- 박지연 (2007).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상훈, 김효선, 김국군 (2011). **마이스터고 학생의 가정배경 및 정서적·학습심리적 특징 분석: 전문계 및 일반계과 학생과 비교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19(3), 149-175.
- 배한샘 (2016).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정 (2007). **자아통제, 자기신뢰 및 교사애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교육학용어사전**
- 성낙철, 최준섭 (1998).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실과교육연구 5(2), 125-134.
- 소영원 (2006).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윤영 (2014). **청소년의 자기결정성동기 유형에 따른 진로목표의 차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정우, 김은정, 홍성도, 이시형, 홍강의 (2000). **청소년 정신과 환자 중 외톨이 혹은 왕따 특성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예비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2), 240-251.
- 손지향 (2008). **청소년의 충동성과 게임중독과의 관계: 외톨이성향의 매개효과**

- 김중.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남선, 조옥귀 (2005). 중학생의 외톨이 정도, 따돌림 가해-피해 경험, 인생목적 및 학교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경남지역연구 제 11집**.
- 신진희 (2005).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철 (1997).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인식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영복 (1984).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의 특성과 관계변화**.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지영 (2017). **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경험과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영순, 최연실 (2008).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모지지, 학교생활적응의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 13(4)**, 197-224.
- 오윤선 (2010).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상담 활성화 방안 연구. **복음과 상담, 제15권**, 202-221.
- 원수경 (2005). **청소년의 또래집단 수용 유형에 따른 여자청소년과 어머니의 애착수준 및 사회성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숙희 (2003). **청소년의 또래집단 수용 유형과 사회기술 및 공격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명숙, 송행숙 (2011). 부모 및 심리사회적특성과 집단괴롭힘 경험이 중학생 외톨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0)**, 89-121.
- 윤연진 (2012).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대한 학생 자아개념의 영향과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아, 정현희 (1998).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98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심리학회, 693-704**.
- 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 (2001).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47-162.
- 이명선 (2014).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집단따돌림 피해 중학생의 사회적 기술, 교우관계, 학교적응,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보미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2010). **은둔형 외톨이 개념의 사회적 구성과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2004).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 수준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 (2008).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 (2016). **중학생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형, 김은정, 김미영, 김진영, 이규미, 구자경 (2001).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부적응**.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신숙 (2013).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인숙 (2008).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고립아동의 사회기술,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2010). **부모-자녀의사소통방식, 가족응집력,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채원 (2010). **커리어코치의 진로교육활동이 중학생들의 진로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선 (2001). **아동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석진, 윤용택, 황태연, 이성백 (2009). **철학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8531&cid=41978&categoryId=41985>).
- 임정순 (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장옥수, 조봉환(2011). **가정과 연계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초등상담연구*, 10(2).

- 전미경 (2003). **초등학교 아동의 독서성향과 진로인식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연이 (2006). **중학생의 집단따돌림과 사회적 기술,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남 (2007). **현실요법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책임감과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 이상로, 이성진 (1991).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정채기 (1995).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경선 (2011). **전문계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에 대한 인식과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남예 (2014).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 (2005). **청소년의 직업결정유형과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815-836.
- 지복희 (2011). **대인관계훈련 프로그램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영진 (2013). **수줍음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와 대인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혜영 (2006). **진로인식 향상을 위한 가정연계 초등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과교육학 연구.
- 정혜연 (2009). **부모진로기대에서 적성의 고려 여부가 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학생들의 지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보람 (2008).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소득수준, 성취동기, 진로태도성숙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보영 (2013).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내·외적 직업가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1(1), 1-17.
- 최은주 (2017). 여고생이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성 (2016).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4) 2014 청소년통계. 서울: 통계청.
- 허경운 (2005).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문제와 분석에 관한 연구.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사례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현주 (2007).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광표 (2014). 커리어앵커를 활용한 진로인식 촉진 모형 개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준표 (2002). 집단따돌림의 진단 및 치료방안.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92집. 서울: 집문당.
- 황소영 (2011). 또래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외톨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 변화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지영 (2018). 감성코칭을 통한 외톨이 유아의 또래관계 형성에 관한 협력적 실행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혜정, 김이경 (2015). 한국 중등학생의 행복도 및 진로인식 분석 연구. *한국교육 문제연구*. 33(2), 21-37.
- 고스케유코 (2011). 은둔형 외톨이 사례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sher, S. R., & Parker, J. G.(1989). *The significance of peer relationships problem in childhood*. in B.H. Schneider. G. Attili, J. Nabel, & R.P. Weissberg(Eds), *Social competence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Amsterdam: Kluwer Academic publishing.
- Coie JD(1990). *Toward a theory of peer rejection. in peer Rejection in*



- Childhood*. AR, Coie JD(E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ie JD, Dodge KA(1988). Multiple sources of data on 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the school: A cross-age comparison. *Child Dev* 59, 815-829.
- Coleman, J.(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Ellenbogen, S., & Chamberland, C.(1997). The peer relations of dropouts: A comparative study of at-risk youths. *Journal of Adolescence*, 20, 355-367.
- Herr, E. L. & Cramer. S. H.(1996).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ic approach(5th ed.). NY: Harpercollins.
- Newcomb AF, Bukowski WM, Pattee L(1993). Children's peer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of popular, rejected, neglected, controversial, and average sociometric status. *Psychol Bull* 113. 99-128
-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Norton.
- Super, D. E.(1951). *Vocational adjustment : Implementing a self-concept* *Occupation*, 30. 88-92.
- Tuckman, B. W.(1974). An age-graded model for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193-212

## Abstract

#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Recogn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iettolie Propensity and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of Middle School Students

Won, Kyung-Sook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Bo-Young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moderating effect of career recogn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iettolie propensity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of middle school students. Through this,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helping students of oiettolie propensity better adjust to school life enhancing the level of career recognition. The research problem for this study is as follows.

Does the career recognition ha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schoolers of oiettolie propensity and their adjustment to school life?

In its initial stage of addressing the above problem, questionnaire of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f 450 middle school students in four schools in Jeju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llection of the questionnaire was made

from September 18<sup>th</sup> and October 13<sup>th</sup> 2017. The collection rate recorded 94.8% with 427 copies of questionnaire being returned. The final relevance rate of the data showed 91.5% due to the existence of 22 copies assumed as non or insincere response.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categorized questions including questions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 oiettolie propensity, career recognition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and analyzed through SPSS for Windows 23.0. In order to check out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data,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as applied, which worked out values of mean and standard deviation by variables. In addition, for the purpose of confirming the reliability of each variable and its sub-variables, a value of Cronbach  $\alpha$  was computed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as employed for identifying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Lastly, the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recogn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iettolie propensity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The summarized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career recognition, there existed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ll variables concerned. It was verified that the career recognition affected oiettolie propensity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in a relatively negative manner with positive correlation existing between 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career recognition. According to the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recogn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iettolie propensity and career recognition, the results turned out to be as follows. First, it is evident that there existed moderating effect of career recogn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iettolie propensity and career recognition. Second, it was verified that career recognition also had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solatedness, one of sub-variables of oiettolie propensity,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showing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etence, one of sub-variables of oiettolie propensity,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respectively. Third, there was no verified moderating effect of career recogn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bsence of companion interchange, one of sub-variables of oiettolie propensity,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In conclusion, oiettolie propensity of middle schoolers affects adjustment to school life in a negative way as one of the important variables a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iettolie propensity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career recognition functions as a moderating variable. In this sense,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materials providing in-school counselling programs which can help students with oiettolie propensity to better adjust to school life through proposing them diverse career development programs. Likewise, it is highly necessary to infuse importance of career recognition, as a moderating variable between oiettolie propensity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into the awareness of teachers and students.

This study is dedicated to identifying moderating effect of career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iettolie propensity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which leads to contribute to helping students with oiettolie propensity better adjust to school life.

**Key words:** oiettolie propensity, adjustment to school life, career recognition, moderating effect

## [부록]

### 설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중학생들의 진로인식에 따른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인의 평가를 위한 설문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즐겁게 지내도록 돕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데 활용하고자 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13조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 됩니다. 오직 학문적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 년 9 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 원 경 숙  
지도교수 : 최 보 영

★ 먼저 여러분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처리를 정확하게하기 위한 것이니 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성별은?	① 남 ( ) ② 여 ( )
귀하의 연령은?	만 ( ) 세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 ) ② 2학년 ( ) ③ 3학년 ( )

★ 다음은 여러분의 또래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 표 하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	1	2	3	4	5
2	친구 집에 놀러 가는 일이 없다	1	2	3	4	5
3	친구들과 전화를 주고받는 일이 없다	1	2	3	4	5
4	나는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5
5	같이 어울릴 친구가 없어 소풍이나 체육대회를 걱정 한다	1	2	3	4	5
6	점심시간에 혼자서 점심을 먹는다.	1	2	3	4	5
7	학교에서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8	우리 반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9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10	내가 부탁을 할 때 마다 친구들이 이유 없이 거절 한다	1	2	3	4	5
11	체육시간, 단체 활동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하려 하지 않는다.	1	2	3	4	5
12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쉬운 일이다.	1	2	3	4	5
13	나는 친구가 많다.	1	2	3	4	5
14	나는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	1	2	3	4	5
15	나는 우리 반에서 인기가 있다.	1	2	3	4	5
16	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을 잘한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의 진로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O'표 하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중학생에게 진로설계는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1	2	3	4	5
2.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	1	2	3	4	5
4.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	1	2	3	4	5
5.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6.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본다	1	2	3	4	5
7.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는가에 따라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8.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9.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10.	내가 선택하고 싶은 직업을 위한 준비과정과 자격조건을 알고 있다.	1	2	3	4	5
11.	내가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 미래에 어떻게 발전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다.	1	2	3	4	5
12.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은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3.	직업선택에 있어서 남녀구분은 따로 없다고 생각 한다	1	2	3	4	5
14.	나의 진로선택은 나의 가치관과 나의 능력과 나의 흥미에 맞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15.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라면 어떤 종류의 직업이든지 상관없다.	1	2	3	4	5
16.	직업은 생계유지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1	2	3	4	5

17.	상황에 따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직업선택을 할 수도 있다.	1	2	3	4	5
18.	나는 미래에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1	2	3	4	5
19.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내 진로는 내 의지대로 선택하겠다.	1	2	3	4	5
20.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맞춰 진학을 생각할 것이다	1	2	3	4	5
21.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나의 진로를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	1	2	3	4	5
22.	진로를 먼저 결정하고, 상급학교를 진학해야 한다.	1	2	3	4	5
23.	자주 나의 진로를 생각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본다	1	2	3	4	5
24.	나는 직업정보에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직업정보를 수집하여 나의 진로결정에 활용할 것이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 표 하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 령 지 않다	그 령 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 령 다	매 우 그 령 다
1.	우리 선생님은 내가 질문을 자주하는 것을 좋아 하신다	1	2	3	4	5
2.	나는 우리 반 친구 누구하고도 잘 어울려 노는 편이다.	1	2	3	4	5
3.	나는 공부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 한다	1	2	3	4	5
4.	나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도 조용히 한다.	1	2	3	4	5
5.	학교에서 단체로 행사에 참여할 때 최선을 다한다.	1	2	3	4	5
6.	나는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언제나 마음 놓고 한다	1	2	3	4	5
7.	친구와 다투었을 때 내가 먼저 사과한다.	1	2	3	4	5
8.	나는 공부시간에 바른 자세로 공부에 열중한다.	1	2	3	4	5



9.	내가 주변이 되었을 때에는 주변 일을 열심히 한다.	1	2	3	4	5
10.	체육대회 때 우리 편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고 참여한다.	1	2	3	4	5
11.	내 마음속의 비밀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할 때가 있다.	1	2	3	4	5
12.	학교에서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훼방하지 않는다.	1	2	3	4	5
13.	예습과 복습을 열심히 한다.	1	2	3	4	5
14.	나는 학급의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다.	1	2	3	4	5
15.	나는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과 같은 행사에 잘 참여한다.	1	2	3	4	5
16.	선생님을 만나면 즐겁고 편하게 생각된다.	1	2	3	4	5
17.	우리 반 친구가 아플 때 찾아가 위로해 준다.	1	2	3	4	5
18.	나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1	2	3	4	5
19.	학교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온다.	1	2	3	4	5
20.	조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의견을 낸다.	1	2	3	4	5
21.	선생님의 전달사항은 꼭 지킨다.	1	2	3	4	5
22.	학급에 터놓고 이야기 할 친구가 있다.	1	2	3	4	5
23.	학교공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4.	학교에 있는 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한다.	1	2	3	4	5
25.	학교생활을 통해 나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 수고하셨습니다.